

##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중견기업계와 현장 소통 강화

- 조태열 외교장관,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참석 -  
- 외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 업무협약 체결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16.(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회장)가 주최한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조 장관의 올해 초 경제단체 현장 행보\*에 이은 민생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 경제단체 소통 경과 : 혁신벤처업계 신년 인사회(1.19), 한국경제인협회(1.22), 대한상공회의소(1.24), 한국경영자총협회(1.30), 한국무역협회(2.13), 한국중견기업연합회(3.12), 중소기업중앙회(3.22)

조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정책 방향 및 외교부의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서 기회요인을 찾아 생존전략을 모색하면서 커진 국력과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보-경제 융복합시대를 맞아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외교부가 추진해온 경제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171개 재외공관망을 명실공히 수출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강연에 앞서 조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 외교부-중견기업 간 정보 교환을 위한 상호 소통 채널 개설, 중견기업-재외공관간 교류·협력 지원, 국제정세 및 경제안보 동향 세미나 공동 개최 등

최 회장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은 외교적으로도 큰 성과이기도 하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선도적 위상은 보다 많은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큰 상황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충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적극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연회에 참석한 50여명의 중견기업 대표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고, 향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안보와 경제를 함께 다루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경제단체를 포함한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를 강화하여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외교 정책을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업무협약식 및 강연회 사진. 끝.

담당 부서	양자경제외교국 유럽경제외교과	책임자	과 장	이용진 (02-2100-7667)
		담당자	서기관	나세주 (02-2100-7670)